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승리절 굿뉴스

드디어 회춘의 샘 찾았다

이기신 하나님이 회춘의 샘일 줄이야!

바야흐로 100세 시대다. 노인들의 놀이터, 탑골공원에 가보면 팔구십 먹은 노인들이 건강하게 소일하고 있는 모습을 즐곤 본다. 예전 같으면 노인이 라고 했겠지만 요즘 60대는 노인 측에 끼지도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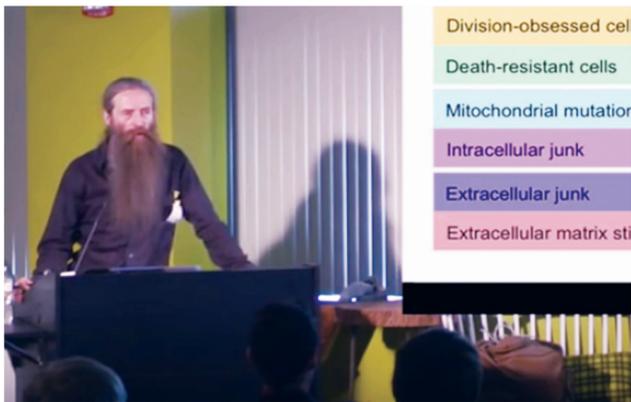
고령화 급속 진행 원인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연령별 인구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령 중 100세 이상 인구가 2008년 2179명에서 2017년 7월 17,468명으로 무려 8배 이상 증가했다(출처: 중앙일보 2017. 8.30.)고 한다. 천재지변이나 전쟁과 같은 변고가 없는 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회춘의 샘이 나왔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과 반비례하여 출산율의 저하로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 즉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젊은 층의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났다.

노화는 질병이다

대개의 노인들은 삶의 희망을 잃고 빈둥빈둥 살아간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는 노인들의 삶은 무기력하고 허무감에 젖어있다. 인생의 꿈과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아무리 희망을 가지라고 해도 포기하고 만다.



SENS 연구재단의 공동 설립자 겸 과학 담당 이사 오브리 드 그레이(Talks at Google, 유튜브 캡처) 그는 1000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이미 태어났다고 말한다. "Ending Aging"이라는 책에서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노화를 정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춘이 있다. 노화와 싸우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다. 그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SENS 재단의 오브리 드 그레이(Aubrey de Grey)는 노화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병이라고 말한다. 즉 노화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라 치유될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이다. 곧 노화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실리콘 밸리에서는 노화 방지와 수명 연장을 내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붐이 일고 있다. 구글이 설립한 바이오기업 칼리코는 세계 7위 제약사 애브비와 15억달러(약 1조7000억

원)를 노화 연구에 투자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북미 최대의 위성라디오 기업인 시리우스 위성 라디오의 창업자인 마틴 로스블랫은 자신이 설립한 바이오기업 유나이티드 세라퓨틱스를 통해 환자의 DNA로 이식용 장기를 합성하고, 뇌 정보를 컴퓨터에 옮겨 수명의 한계를 없애는 연구를 하고 있다.

오라클의 공동창업자인 래리 엘리슨은 자신의 이름을 딴 의학재단을 세워 3000억원 이상을 노화 연구에 투자했다.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와 페이스북 창업자인 피터 틸은 노화세포를 없애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유니티 바

이오테크놀로지에 1300억원을 투자했다. 이 회사는 곧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들어갈 계획이다. (출처: 조선비즈 2017. 5.9)

항노화연구 희망적 결과 나와

노화 방지와 수명 연장 프로젝트 실적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유전자 치료(gene therapy), 줄기세포치료(stem cell therapy), 혈액속 항노화요소 연구 등에서 회춘의 샘을 찾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토니 위시스코레이(Tony Wyss-Coray) 스탠포드 의과대학 교수는 젊은 사람의 피를 노화된 늙은 쥐(치매가 걸린 쥐)에 투입하여 인지능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어냈다. 최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Ohio State University) 연구진은 피부 세포를 원거리로 모든 장기의 요소로 변환할 수 있는 나노패드를 제조했으며 이는 노화 초기 인 장기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유전공학자, 생리학자 등이 노화를 거스르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슬성령: 회춘의 샘

과학의 발전은 인류의 영생에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영생은 불가능하다. 몸 자체가 질병과 외부 공격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영생은 육신이 하나님의 성체(聖體)로 이루어져야만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양식, 회춘의 샘인 이슬성령을 먹어야 한다. 회춘의 샘은 순칼이나 그릇으로 떠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는다.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으니 빨리 먹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보라.*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18>
“한도 끝도 없이 낮아져야”

누구든지 내 몸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기며 나 자신을 항상 짓이겨야 한다. 하나님이 되는 방법이 바로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다. 누구나 똑같은 사람이므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 자기도 하나님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반드시 하나님

이 되어 영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과일을 먹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과일은 하나님의 마음, 영생의 확신인 것이다.

영생을 추구하는 비결은 한도 끝도 없이 낮아지는 것이다.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존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나라는 존재는 마귀새끼라는 의식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비결인 것이다.*

제단소식

에고가 강해지는 이유

승리제단에 입문한 지 몇그레 같은데 벌써 29년이 훌쩍 넘었다. 서른두 살에 시작하여 이제 환갑이 지났으니 적지 않은 세월 신앙을 한 것이다. 구세주를 만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며 약 30년 동안 신앙을 했으니 지금쯤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다. 본인 스스로도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최근 나는 내 신앙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사건을 겪었다. 지난 8월 19일이었다. 위와 대장 내시경을 받기 위하여 구로동에 있는 건강검진센터에 오전 8시 반 경 도착하였다. 그날 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 1지역 단합모임에 11시 30분 참석할 예정이었다. 8시 반 예약이니 11시쯤 충분히 검진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런데 가만히 진행되는 상황을 살피니 늦어질 것 같아 직원에게 물어보니 적어도 4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였다.

“그럼 난텐데, 11시 반에 제단 1지역 식구들과 단합모임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떡하지. 별 수 없이 단합모임을 연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며 단합모임연기를 하려고 했다. “내시경 검사를 위해 엿저녁부터 장을 비우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취소하는 것은 좀 힘든 일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단합모임 연기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 그렇게 했다가는

식구들이 불만을 터뜨릴 것 같아 안 되겠다”는 염려가 올라왔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단합모임을 하기로 하였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면 안 돼

이러한 의사결정을 거치면서 나는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egocentric)인지 알게 되었다. 왜 나는 애초에 자기 중심적이 아닌 방향으로 행동을 결정하지 않았는가, 양심에 가책이 되었다. 신앙이란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는 일인데 30년 동안 신앙했다는 놈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내 자신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었다.

공자님 말씀에 “己所不欲勿施於人(기소불욕물시어인)”이라는 것이 있다. 자공(子貢)이 “제가 평생 동안 실천할 수 있는 한 마디의 말이 있습니까?”라고 공자에게 물으니 “그것은 바로 서(恕)이다.”라고 대답한 후 그 말씀에 이어서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는 공자의 말씀이다.

신앙을 할수록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것은 신앙을 잘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나의 중심에 자신을 없애고 상대방이나 하나님을 위치시켜야 한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지만 실생활에서 실천이 안 된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회개하라.*

김중만 / 본지 발행인

본부제단 5지역 2개월 만에 1등 개인 1등 정수윤 승사



5지역 강준희 부지회장이 상금을 받고 있다

하였고, 6지역이 3등을 차지하였다. 지역 1등을 두고 3지역과 5지역이 현금과 전도 점수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새식구 21일 점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5지역이 1등을 차지하였다. 일 년 내내 시상권에서 밀려나지 않는 4지역이 시상 권에서 밀려난 것은 대단한 이변이다.

본부제단 9월 활동 시상이 10월 3일 화요일 2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5지역이 2개월 만에 다시 지역 1등을 차지하였으며 3지역이 2등을 차지

정수윤 회장은 “지금 승리제단은 우리가 잘해야 주님의 역사가 좋은 조건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에 있다. 주님말씀 요절을 외우면서 생활하니

까 신앙에 큰 도움이 되고 깨달음이 다르다. 주님말씀이 각인 되면서 자유율법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자유율법을 주님이나 지키지 우리는 지키지 못한다는 의식은 금물이다. 노력해야 한다. 우리도 주님처럼 자유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고 기를 써야 한다. 노력하면 된다.”고 강조하였다.

지역 1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2등: 3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정은경)
3등: 6지역(지역장: 안병천, 지회장: 석선자)

구역 1등: 45구역(구역장: 신순이)
2등: 54구역(구역장: 성주희)
3등: 42구역(구역장: 고선희)

개인 1등: 정수윤 승사
2등: 신순이 권사
3등: 석선자 권사
성주희 권사*

정정합니다.

744호(10월1일자) 2면 기사 중 가나안 훈민전처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아니라 2장 1절로 정정합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제종교)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三神一體一人出된 眞人의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일인출

진인

감로



서울사무실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야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복음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

본지 지남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www.victor.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